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및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 마련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5백호를 넘어선 <인권하루소식>의 성숙한 모습과 <인권정보자료실>의 힘찬 출발을 약속드립니다. 깊어 가는 가을 속에 회원 여러분의 열매가 익어가는 향기가 가득 담기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을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센터로 만들자.

임중인(운영위원,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이 탄생한지 2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이사를 4번이나 다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방은 흠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일을 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권운동하면 종교단체의 인권위원회를 떠올렸는데 순수하게 인권운동가들이 인권운동을 표방하고 만든 것이 사랑방이다. 잘 알다시피 현재의 사랑방의 주요사업은 인권자료의 수집·정리 제공, 인권교육, 인권홍보, 국내·외 연대, 인권하루소식의 발행이다. 사랑방은 도약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이래 사랑방은 크게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였다. 집행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는 10명의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기자, 회사원 등 70여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두어 사업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500명인 인권

하루소식 유료독자가 있다.

헌신적인 8명의 상근일꾼들이 있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 사업과 재정규모는 2배로 커졌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운영위원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사랑방 사업을 기획, 추진하여야겠다. 자문위원은 좀 더 유능한 자문위원의 초빙과 사업자문에 힘을 쏟아야겠다. 하루소식 독자는 독자배가운동과 소식지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야겠다. 상근일꾼들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될 때 한발 한발 사랑방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중심지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보다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간절히 바란다.

「사람사랑」에서는 사랑방을 이끌고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의 열매를 가꾸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업보고

(9월 세재주~10월 들재주)

인권하루소식 500호기념·인권정보자료실
기금마련전 성황리에 끝나

- 지난 14일 열렸던 기금마련전이 운영위원, 자문위원, 사무국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수금 중이며 서화 판매까지 합하여 대략 2,500만원 안팎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의 대부분은 정보자료실 사업에 투여할 것이며 자세한 재정보고는 다음호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00호 발간"
언론의 취재보도 잇달아

- 인권하루소식의 500호 발간에 언론의 관심들이 잇달았습니다.

- 주,월간지의 경우 한겨레 21, 월간 길지등에 사진과 더불어 발간경위, 의의등이 소개되었으며,

- 방송의 경우도 박래군 편집장이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매주 목요일 고정출연하는것외에 교통방송 '임국회의 라디오광장'에도 지난 18일에 출연하였습니다.

월례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순차적으로 초청기로 함

- <인권운동 사랑방> 구성원간에 인간적 유대와 사업적 공유를 확대시키기 위해 매월 말에 열리는 운영위원회 월례모임에 자문위원을 5명씩 초청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10월 월례모임에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일반 직장인 자문위원들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인권교재를 지속적으로 출판할
출판사의 확정

-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인권교재 1,2와 앞으로 기획될 인권교재를 출판할 출판사로 도서출판 <2000>을 선정하였습니다.

- 그간 여러 출판사와 교섭을 해왔으나 한, 두 권이 아닌 지속적 출판을 한다는 점을 주 조건으로 하여 선정케 되었습니다.

- 인권교재는 지난번 보고 드린것과 같이 우선은 내년 초까지 '수감자의 권리' '국제인권법 입문'을 출판기로 하였습니다.

인권단체편람 증보판 발행
연말로 연기하기로 함

- 지난 2월 발행한 인권단체 편람을 그간 인권홍보실 담당으로 10월에 증보판을 발행기로 하였으나 홍보실의 하루소식 발행이라는 업무과다와 최근 인원축소로 약속된 시간에 발행치 못했습니다.

- 이를 연대실로 이관하여 올 연말에 발행기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작이 끝나는대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일꾼 엄주현씨를 채용함

- 지난 9월 면접후 운영위원회의 논의 끝에 엄주현(여, 26세)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엄주현씨는 3개월간의 연수기간을 두고 각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세미나등을 거친 뒤 정식 일꾼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 국가보안법 국내심포지움 열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 <인권운동 사랑방>이 간사단체를 맡고 9개의 인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협은 11월 22일-25일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에 앞서 11월 1일 국내심포지움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이제껏 논의 되어온 폐지의 당위론을 직접제기하기 보다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생활의 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치, 여성, 문화, 언론, 정신학등의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시간과 장소는 11월 1일 오후 2시 - 8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입니다. 운영,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정보자료실 P-C 통신 서어비스
본격 준비에 돌입

- 인권정보자료실이 한국통신의 통신망인 하이텔상에 독자메뉴로 등록하여 자료, 정보서어비스를 11월부터 개시하는것을 목표로 본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크게 인권하루소식, 인권상담, 인권정보, 자료서비스를 기본 축으로 이루어질 이 메뉴는 현재 화엄정보통신과 합작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메뉴 구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선은 11월부터 기본 메뉴와 인권하루소식을 주제별, 날짜별 검색이 가능한 서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 운영, 자문위원 여러분중 메뉴나 인권정보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무국과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문익환 목사님 부인 박용길 장로님
석방을 위한 하루농성 참가

- <인권운동 사랑방>이 참석하고 있는 박용길 장로님 석방 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농성이 있었으며 그중 하루를 사랑방이 담당하여 전 사무국원이 참가하여 하루 농성을 벌였습니다.

- 박용길 장로님은 지난 9월 7일 평양방문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으로 기소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국가보안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박용길 장로님은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수감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인데도 법무부측은 입원중이던 병원에서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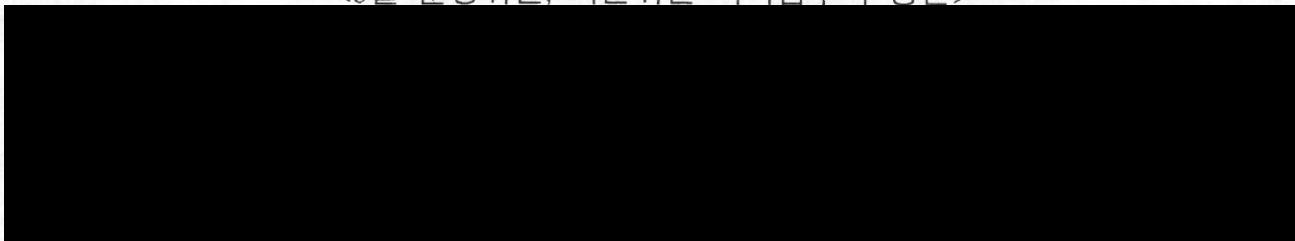
9월 재정보고

* 7월 이월금 - 1,268,739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2,297,888	활동비	3,360,000
자문,운영위원회비	3,580,000	통신요금	1,536,000
후원금	530,000	사업비	1,002,040
인권교육	290,000	사무비	306,880
자료수익	170,600	집세	396,987
		우편요금	349,670
		식대	241,100
		자료구입	120,050
		잡비	64,540
계	6,868,488원	계	7,377,267 원

* 잔액 -1,777,518 원

<9월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자료소식

이번에는 사회개발과 관련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맞이하여 UN Research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자료와 인간사회개발포럼에서 발표된 약식논문들만을 실었습니다. 단행본과 종합 자료집, 유엔문서등은 차기에 실기로 하겠으며,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복사 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An Agenda for Development/ Boutros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지음/ 69쪽/ 아티클/ 94.5/ EN

: 유엔 안보리의 요청으로 유엔기구내의 논의의 조직화를 위해 갈리 사무총장이 평화에 관한 테제에 이어 평화, 인권, 민주주의등과 개발의 상호관련성등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한것임.

◎ Transnational corporations: impediments or catalysts of social development? (초국적기업: 사회개발의 장애물인가 촉매제인가?)/ Eric Kolodner지음/ UNRISD/ 51쪽/ 아티클/ 94.5/ EN

: 초국적기업과 사회개발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용, 소비자 보호, 건강, 환경, 기술이전에 대해 초국적기업과 사회개발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After the golden age: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global order (황금시대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복지국가의 미래)/ Costa Esping-Andersen지음/ UNRISD/ 36쪽/ 아티클/ 94.7/ EN

: 전지구적 통합이 증대되는 속에서 서구산업사회국가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유시장안에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가운데 복지국가는 복지비용의 삭감, 노동임금의 하락등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Social safety nets and adju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안전망과 구조조정)/ Jessica Vivian지음/ UNRISD/ 34

쪽/ 아티클/ 94.1/ EN

: 사회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안전망계획(social safety nets programmes)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안전망계획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의 성격과 성과를 요약하고 있다.

◎ 21세기의 세계와 한국 NGO의 도전/ 박상증 지음/ 4쪽/ 아티클/ 94.12/ KO

: 탈냉전시대, 새롭게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 NGO의 성장과 현황을 짚는 가운데 WSSD를 맞이한 NGO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지음/ 67쪽/ 아티클/ 94.7/ KO

: 세계화와 지역화로 압축되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역민중운동의 영향을 살피고, 지역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민중운동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WSSD의 개최배경과 논의과정/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지음/ 31쪽/ 아티클/ 94.7/ KO

: WSSD의 개최배경, 준비상황, 주요쟁점, NGO의 준비과정과 역할 등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속에서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난·고용·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GO들의 대안을 서술하고 있다.

◎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방향/ 이시재 지음/ 6쪽/ 아티클/ 94.12/ KO

: 시장경제와 국가관리주의 개발모델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인간중심개발과 사회적 공정성의 추구, 분권주의,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개발모델 제시하고 있다.

◎ Korea Economic Development: Miracle or Mirage? (한국의 경제개발:기적이냐 신기루인가?)/ 김대환 지음/ 18쪽/ 아티클/ 95.3/ EN

: 지난 30여년동안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